

광주도시공사, 맞춤형 임대주택사업 개선

‘사업 부적정’ 감사 공개 사과...재발방지 나서

세대별 관리카드 작성·건물하자 리모델링 등

맞춤형 매입임대 사업 과정에 난맥상을 보인 광주도시공사가 종합개선을 수립하는 한편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직원에 대해 징계 절차에 들어간다.

광주도시공사(사장 조윤준)는 맞춤형 매입임대 사업추진 과정에 대한 광주시 감사결과를 경히 받아들이면서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공개사과했다.

또한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그간 떠돌던 각종 의혹을 해소하고 매입임대주택 및 임대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해 다시는 이러한 과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업무 추진방법을 개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번 감사결과 업무처리 부적정

으로 지적된 직원에 대해서는 조만간 인사위원회의를 열어 조치할 방침이다.

그간 발생한 공실 248세대를 해소하고자 대학성 숙소활용 등 다각적인 방법을 추진, 10일 현재 98세대로 공실률을 대폭 낮췄다.

나머지 미입대된 주택도 공실률이 해소될 때까지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추진할 계획이며, 각 자치구와는 지난 3일 업무협의를 걸쳐 상시접수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광주도시공사는 공실주택 해소를 위해 건물하자 및 시설물 관리방안 개선, 공용부 청소 등 종합개선대책을 수립해 입주민의 주거안정과 매입임대주택 관리 체질개

선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현재 입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사항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결로·곰팡이 민원 발생 세대는 단열벽지 등 교체공사를 실시하고, 또 건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세대별 관리카드를 작성해 투명하게 관리한다.

또한 매입건물 크랙발생, 누수, 타일 들뜸 현상 등 건물하자로 기피 대상이 되고 있는 빌라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을 실시해 재입대할 계획이다.

한편, 매입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시민들의 불신해소와 최적의 주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가구 구성원, 면적, 생활여건 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추진함과 동시에 입주점검 일을 지정·운영해 신뢰도 회복에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현재 계약되어 있는 입주자는 관련법에 따라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만약 허

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임대주택의 전대행위, 임차권 양도행위 등 위법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법에 의해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광주도시공사는 동절기 시민들의 주거편의와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한국 에너지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세대내 창호, 바닥, 단열, 보일러 등 난방상태를 점검해 입주자들의 난방비용 절감도 도모할 방침이다.

2011년부터 추진된 매입 임대주택 사업은 여러 문제점이 파악됨에 따라 2013년부터는 주택을 매입하지 않고 국비 26억원을 반납한바 있다.

광주도시공사 관계자는 “수입된 종합개선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입주민들이 선호하는 주거공간으로 바뀌 공기를 해소하는데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국정교과서 ‘근현대사’ 축소

당정, 편찬기준 마련...‘5·16 군사정변’ 표현 유지

정부와 새누리당은 10일 국정교과서 편찬기준 중·고교 역사교과서의 편찬기준에 대해 근현대사 부분을 현행보다 줄이기로 했다.

또 ‘5·16 군사정변’이라는 표현은 현행대로 유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편찬기준을 당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했다. 교육부로부터 역사교과서 발행 업무를 위임받은 국정편찬위원회는 오는 15일 편찬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 역사교과서개선특위 간사인 강은희 의원은 기자 브리핑에서 “현재 세종대왕은 기술이 다섯 줄 정도밖에 안 돼 있다”면서 “근세사를 60%로 하고, 근현대사를 40%로 줄이기로 정리가 됐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또 ‘5·16에 대한 부분은 혁명으로 바뀔 것이라는 추측이 많았는데

법적으로 군사정변으로 돼 있으니 그냥 정변으로 가기로 했다”면서 “군사정변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내용까지는 없지만 이에 대해서 기술하고, 용어에 대해서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 서 사건을 전제로 “시대 상황을 설명하는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추측한다”면서 “예를 들어 그동안 경제개발의 부작용만 교과서에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시대상인 것이라는 시대에 맞는 형태에서 서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정은 교과서마다 다른 6·25 전쟁의 사망자 등의 숫자도 정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집필진 구성에 대해서는 “47명으로서 근현대사에는 경제사, 정치사, 헌법, 군사학 등의 전문가가 포함된다”면서 “아직도 압박을 많이 받고 있어서 (공개용) 보류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고속도로 통행료 4.7% 인상

29일부터 광주~서울 900원 ↑

전국 재정고속도로 주행요금에 7% 오른다.

이에 따라 기본요금에 주행요금을 더한 통행료가 평균 4.7% 인상된다.

재정고속도로와 함께 천안~논산고속도로, 인천대교 등 민자고속도로 5개 노선도 통행료가 평균 3.4% 상승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속도로 통행료 조정안’을 내놨다. 인상된 통행료는 12월 29일 0시에 요금소에서 진출하는 차량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호남고속도로는 서울요금소에서 광주요금소까지 294.8km에 900원(4.7%) 많은 1만5300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날 조정안에는 민자고속도로 10개 노선 가운데 5개의 통행료를 200~400원 올리는 내용도 담겼다. 천안~논산고속도로는 9100원에서 9400원, 인천대교는 6000원에서 6200원으로 오른다. /연합뉴스



로스쿨 재학생 “사시 폐지” 10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2차 전국 로스쿨 법무부 규탄대회’에 참석한 로스쿨 재학생들이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입장 철회를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지역감정 조장팬 당선 무효

국회 통과 이색 법안

車 연비 과장 과징금 상향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의결된 일부 법안들이 눈에 띈다.

국회는 10일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발언을 하는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석)의 위원회 대안으로 상정된 개정안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해 특정지역, 지역인 또는 성별을 비하·모욕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동차 연비를 과장했을 경우에 대한 과징금 한도를 대폭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연비를 포함한 자동차 안

정기준 위반에 대해 업체에 매기는 과징금 액수를 현행 매출의 1천분의 1에서 100분의 1로 상향하고, 한도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렸다.

중앙 및 지방정부에 대해 지방자치법 등 지자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도 통과됐다.

서울 송파구 싱크홀 등 ‘지반침하’로 인한 국민 불안을 차단하려는 취지다. 특별법은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일정 규모 이상 지하 굴착공사를 할 때는 안전영향 평가를 시행하도록 했다.

정부는 상하수도·통신·전력 등 시설물과 지하철·지하보도도 차도·주차장 등 거미줄처럼 얽힌 지하공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통합지도도 오는 2019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이종행기자 golee@연합뉴스

오늘 개성공단서 남북 차관급 회담

이산가족·금강산관광 등 논의

남과 북은 11일 오전 개성공단에서 제1차 차관급 남북당국회담을 열고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금강산관광 재개 등 남북 간 현안을 논의한다.

10일 통일부에 따르면 남북은 전날 오후 판문점 연락관 채널을 통해 당국회담 대표단 명단을 교환하고 세부 회담일정을 조율했다.

남측은 황부기 통일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김의도 통일부 국장, 손재락 총리실 국장 등 3명의 명단을 통보했고, 북측도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부국장으로 알려진 전중수 수석대표(단장)와 황철 조평련 서기국 부장, 황중성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 차장 등을 3명의 명단을 알려왔다.

남측 대표단은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북측 대표단과 만나 오전 10시 30분

(평양시 기준 10시)에 회담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어 남북 대표단은 낮 12시 30분께 종합지원센터 내 식당에서 각자 식사를 한 뒤 오후 2시 30분께 전체회의 혹은 수석대표 접촉을 재개하기로 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작년 2월 고위급 접촉과 올해 8월 고위당국자 접촉 등 긴급 회담을 다루는 남북 접촉이나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등 특정 현안을 다루는 회담은 있었지만, 남북 현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정례 당국회담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당국회담의 의제는 사전에 조율되

지 않았기 때문에 회담 당일 첫 전체회의에서 양측이 기초발언을 통해 각자 중요시하는 의제를 시사할 것으로 보인다. 또 남측은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북측은 금강산관광 재개를 희망하는 등 양측이 우선시하는 남북 현안이 차이가 있어 의제를 정하는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번 당국회담의 성과는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놓고 남북이 얼마나 점점을 해소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

문화융성위원회, 표제순 위원장 위촉

대통령 소속 제2기 문화융성위원회 위원장에 표제순(사진) 문화나눔네트워크 시루 대표가 임명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표 신임 위원장과 민간위원 14명을 새로 선임했다고 10일 밝혔다.

표 위원장은 현재 문화나눔네트워크 시루 대표로, 1988년 서울올림픽, 2002월드컵, 경주세계문화엑스포 등 국가 문화행

사를 성공적으로 연출했던 한국의 대표적인 연출가다. 지난해 은관문화훈장을 받았다.

문체부는 “여러 분야를 폭넓게 아울러 국정 2기 문화융성의 핵심과제를 추진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까지...
중매 잘한다~ 성사 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출업 (공공기관 다년재직) 광주시초등학교 졸업

초혼 추천 회원

| | |
|-------------------------|----------------------|
| 의사, 변호사, 의사, 한의사 27~45세 | 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
| 편사, 감사, 변리사, 회계사 28~47세 | 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 |
| 공무원(5급~9급) 27~42세 |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
| 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 |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
| 상성, 현대, LG 직원 28~47세 |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26~39세 |
| 은행원, 연구원 29~49세 | 공무원(5급~9급) 27~42세 |
| 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 |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
| 사업가, 자영업 29~39세 | 간호사, 은행원 26~47세 |
| 세무사, 연구원 29~48세 | 학원(음악)원장, 감사 27~42세 |
|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 스튜어디스, 영양사 26~42세 |
| 교사, 교수 28~49세 | 미스코리아, 미스코리아 27~36세 |

재혼

| | |
|--------------------|---------------------|
| 의사, 변호사 32~65세 | 국영기업체 기관장 52~66세 |
| 공무원, 교사, 교수 35~65세 | 대기업 간부 36~59세 |
| 회사원, 자영업 33~67세 | '무출산 여성' 희망 31~58세 |
| VIP 희망 여성 29~53세 | 학원(음악)원장, 감사 27~63세 |
| 공무원, 교사 32~58세 | 간호사, 회사원 29~48세 |
| 자영업, 가사 35~64세 | '무자녀 남성' 희망 28~48세 |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번출구 707 하나은행 B10 6층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

혈당조절 때문에 걱정되시죠?

희소식
Ym 유한바이오 **글리코엔** 골드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당의 흡수를 억제시켜 Glucose를 조절합니다

하루 2번으로 혈당조절 ok!!

- 1 식후 혈당상승억제에 도움을 주어 혈당조절이 잘 되지 않을 때 혈당조절을 개선시켜줍니다.
- 2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한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 3 "혈당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정성된 마음으로 완성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 전화주시면 책, 자료, 무료로 우송해 드립니다 ※
Dorina NAVER 백세생활건강 을 검색하세요
문의 H.P 010-3598-7080/1899-3975

교수 초빙

글로벌 세상을 선도하는 동강대학교에서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교원을 초빙합니다.

초빙분야 및 인원

| 재원구분 | 학과 | 인원 | 전공 분야 | 비고 |
|-------------|----------------------------|----|------------|--|
| 전임교원 | 간호학과 | 0명 | 간호학 | - 박사과정 2학기 이상 이수자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임상중합병론 또는 전공 관련 기관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 - 서울대학교 계열의 경쟁자 우대 |
| | 기초생명과학 (생물생리학, 생화학, 약리학 등) | 0명 | | -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전공관련 기관 근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 전임교원 (강의전담) | 전기전자과 | 0명 | 전력공학, 전기기기 | - 박사학위 소지자 |
| | 간호학과 | 0명 | 간호학 | -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관련분야 근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 | 호텔조리 영양학부 | 0명 | 호텔조리 | - 박사학위 수료 이상인 자 |
| 신학협력 중심교원 | 유아교육과 | 0명 | 교육학 | - 박사학위 수료 이상인 자 |
| | 뷰티미용과 | 0명 | 헤어, 피부 | -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관련 자격증 소지자 |
| 신학협력 중심교원 | 간호학과 | 0명 | 간호학 | -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중합병론 근무경력 10년 이상인 자 |

접수기간 2015. 12. 17(목) ~ 12. 18(금) 17:00까지
접수처 우리대학교 사무처 행정지원팀 ☎(062)520-2211-2
세무사항 우리대학교 홈페이지(http://www.dkc.ac.kr) 교수초빙 공고 참조

동강대학교
(61200) 광주광역시 북구 동문대로 50